

이대서울병원,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3인실 병실·스마트 수술실 등 환자에 새로운 치유 경험 선사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전문 서비스 병원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고, 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하는 고객감동경영대상은 혁신과 차별화로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주는 기업의 공로를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최초로 3인실 병실을 열었으며, 다양한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 보호자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해 5월 강서구 마곡동에 정식 개원한 이대서울병원은 기존 병실 3인실, 전체 중



지난 1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박미혜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환자실 1인실이라는 새로운 병실 운영 체계를 채택했고, 스마트 수술실, 임상통합상황실 등 스마트 진료 시스템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또 환자와 보호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힐링정원 및 갤러리 '아트큐브'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 다양한 음악인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부동산 정책과 실수요자



기지 수첩

나 유 리
(파이낸스&마켓부)

“구청서 주거여부 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공무원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들어갈 수 있으세요? 조심 좀 부탁 드려요.”

4년 전 이곳 저곳 집을 둘러보다 큰 평수임에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을 계약하게 됐다. 매번 주인이 주머니는 주거조사가 나오기 보름 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 보증금 대비 큰 평수를 자랑하던 집에도 이유는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이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상가다.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신고가 가능해 전입신고 확정신고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시설로 개조한 부분이 있으면 불법시설에 해당해 강제금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다.

이런 경험도 익숙해질 즈음, 날벼락이 떨어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지 주인이 주머니는 집을 팔았다. 5000만원을 주고 강동전세로 매매했던 주인이

주머니는 그렇게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15억원이 넘는 뽕뽕한 한 채로 돌아갔다.

새 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생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에 4000만원이 오른 보증금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세대분리 탓이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 대신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돈 없는 임차인은 거리로 나왔다. 청년을 위한 다던 청년주택은 모두 1순위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매번 또 다른 돈 없는 임차인에게 밀렸다.

현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하는 실수요자에 '돈 없는 임차인' 혹은 '돈 없는 청년'은 포함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

풍선의 한쪽부분을 꼭 누르면 다른 쪽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더 심하게 누르면 풍선은 결국 터져버린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한 부분을 누르기 위한 정책은 아닌지, 곧 터질 만한 취약부분에 대한 보안은 철저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yul115@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美 CES서 '비비고' 알렸다

대표 제품 김스낵 '비비고칩' 큰 관심

CJ제일제당은 이달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 기간 CES에서 '비비고 존'을 운영하고 비비고 제품과 다양한 굿즈

를 소개했다. 대표 제품으로 선보인 김스낵 '비비고칩'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이 구매처와 가격을 물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싶은 모든 순간, 비비고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통해 한식과 한국 식문화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박인웅 기자 parki7854@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의 한 참가자가 CJ제일제당 '비비고 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CJ제일제당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48년생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6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72년생 지혜가 생기고 영업도 잘된다. 8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날 수밖에 없다.
- 소** 37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더라도 달래라. 49년생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준다. 61년생 보통 있는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말 것. 73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 빌 언덕이 필요한 날. 85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기다려보자.
- 호랑이** 38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나 뜻밖의 좋은 일. 50년생 받았으면 자신도 베풀어라. 62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74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86년생 가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다.
- 토끼** 39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51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일거리 돌아오니 이득이 많다. 63년생 비단옷 입고 밥집을 돌아다니는 격. 75년생 의견통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라. 87년생 휴대전화 교환을 고려.
- 말** 40년생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 52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64년생 동문서주해봐 이익이 별로 없다. 76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88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 뱀** 41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53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 65년생 삼재이니 이혼 위기를 극복하라. 77년생 정치적 인연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89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 말** 42년생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자. 54년생 언제나 진리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66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니다. 78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90년생 허투르가져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 양** 43년생 오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55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 67년생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79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해보라. 91년생 여름이 갔으니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 원숭이** 44년생 기죽지 말고 살자. 56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68년생 칠혹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80년생 매력적인 이상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92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 닭** 45년생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되니라. 57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69년생 뿌리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8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93년생 백만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
- 개** 46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58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70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상책. 82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94년생 실수도 하지 않도록 점검.
- 돼지** 4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59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온다. 71년생 인생은 세용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83년생 서류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95년생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김상희의四季

재뉴어리(January)

음력은 한민족의 정서를 대변한다. 구습(舊習)은 촌스럽고 병폐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서구를 중심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화한 사회가 선진 문명이라 여긴 까닭이다.

기계화로 진행되는 산업사회의 병폐를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렬하게 대가를 치르는 데는 근 반세기의 세월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오래된 것의 지혜와 가치는 재조명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1월을 재뉴어리(January)라 한다. 재뉴어리가 그리스어의 야누스(Janus)에서 기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야누스는 양면의 얼굴을 가진 신으로서 한 얼굴은 과거 쪽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면은 다가올 미래 쪽을 향하고 있다.

시간의 양면이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로 구분된다. 마음도 항상 과거를 향해 있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있다. 필자의 상념으로는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마치 야누스처럼 과거와 미래 양쪽에 꼬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격정과 근심으로 현재를 소진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보다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근심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라고 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요체가 됨을 통찰한 것이다.

덧붙여 임제선사는 “‘직시현금 갱무시절(直是現今 更無時節)’ 즉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시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직설했다. 자, 새로운 해를 ‘직시현금 갱무시절’ 글귀로 시작해보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5		8			
1								6
		2	6		1	7		
		9	3		4	5		
	8							3
		5	8		7	9		
		7	1		8	6		
5								9
9		5			6			3

				5				
4			9	2		7		
2				1				8
		4		6				5
5			3		2	9	4	
	9	1		4				3
	5		4		1			
		6	8					
				7		4	5	

스도쿠 정답								
4	8	9	2	5	7	1	6	3
6	1	5	7	8	9	3	2	4
5	7	8	6	1	2	4	9	3
2	9	6	4	1	8	5	7	3
1	8	7	9	6	3	2	4	5
7	6	1	5	9	2	4	8	3
9	5	2	6	8	7	3	1	4
8	1	4	5	2	9	6	7	3
6	5	7	9	2	4	8	1	3
2	1	5	8	9	7	3	6	4
8	9	1	6	7	2	5	4	3
2	4	9	1	7	5	1	6	8
1	7	6	2	8	4	9	5	3
5	2	8	6	9	1	7	3	4
8	5	7	1	9	6	4	2	3
9	1	2	8	7	6	5	4	3
7	6	2	5	4	8	1	9	3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6호